

## 주중·주말 관광객의 축제참여동기에 관한 비교 연구\*

무안백련대축제와 강진청자문화제를 중심으로

Motivations for Festival Participation of Holiday Makers:  
A Comparison of Muan White Lotus and Kangjin Celadon Festival

이 장 주\*\* · 박창규\*\*\*

Lee, Jang-Joo · Park, Chang-Kyu

### ABSTRACT

*With on-site survey, authors compare the two famous festivals, Muan white lotus festival and Kangjin celadon cultural festival. Applied were the variables such as characteristics of statistics and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during the weekdays and weekends.*

*Using factor analysis seven important factors were identified from 27 items: friendliness, harmonization, playfulness, extra-ordinariness, culture, nativeness and novelty. Authors found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was varying between the visitors of each site and betwee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y population statistics/tourism behavior. Allegedly one could enhance festivals participation if one considers motivating factors proved here carefully.*

핵심용어 : 주중관광객, 주말관광객, 축제참여동기, 인구통계적 특성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 2002-002-B00238)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관광자원개발관리와 지역축제에 관심 있음.  
e-mail: jjlee6840@korea.com

\*\*\* 독립담양대학 관광정보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지역관광개발과 관광지개발에 관심 있음.

## I. 서론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을 지역발전의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관광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관광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은 수출이며 부의 재분배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희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효과를 유발시킴으로써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유출 그리고 지역의 과소화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역에 유입된 관광비용은 그 지역경제 내에서 확대 재생산되므로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산업승수 효과가 큰 지역성장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다(이장주 2003).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은 관광지개발과 관광상품개발로 대별할 수 있는데 관광지개발이 시설기반을 중심으로한 가시적인 하드웨어 개발인 반면에 관광상품개발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관광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축제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Getz, 1991).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00여 개에 달하는 축제가 연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성공적인 지역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로 나타나고 이는 바로 지역관광 진흥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주민의 자긍심양양, 지역의 장소마케팅 역할담당, 관광비수요기 타개책 등 다양한 편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축제가 기획·연행되고 있으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관광상품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축제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국내·외서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참여동기, 지역축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축제가 자지고 있는 이미지, 지역축제참여자들에 대한 목표 시장과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이장주, 2001; 이장주·이후석, 2001; 이충기외, 2000; 이용기외, 2003)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반면에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중관광객과 주말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비교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긍정적 측면을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해 축제참여동기 측정항목을 개발하고 축제참여자들의 축제참여동기요인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축제참여자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인구통계적·관광행태적 특성변수를 적용하여 두 축제의 참여동기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의 참여동기에 걸 맞는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이벤트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하나인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채용식의, 2001; 이태희, 2003). 이런 의미에서 축제는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비수기 관광을 타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축제가 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효과와 시장정보에 중심이 있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면서 축제참여자들의 동기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이장주, 2001; 이태희, 2003).

Uysal, Gahan과 Martin(1993)은 미국 South Carolina에서 개최된 옥수수축제에서 탈일상성, 흥분성, 신기성, 사교성, 가족화합성 등 5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여 이들 동기요인을 인구통계적특성변수에 적용하였는데 축제참여동기가 변수에 따라 상당한 지각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화합성에 있어서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참여동기가 높게 지각되고 있어 가족을 동반한 참여자가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연령이 많은 참여자가 젊은 참여자들 보다 축제의 신비감에 보다 높은 참여동기 지각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탈출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탈일상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Mohr, Backman, Gahan과 Backman(1993)은 미국 South Carolina의 Freedom Weekend Aloft Festival(열기구축제)에서 사교성, 가족화합성, 흥분성, 탈일상성,

신기성 등 5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열기구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첫째, 과거에 열기구축제에 참여하고 다른축제에 참여(I), 둘째, 열기구축제에 불참하고 다른축제에 참여(II), 셋째, 열기구축제에 참여하고 다른축제에 불참(III), 넷째, 축제참여경험이 전혀없음(IV) 등 4 type 으로 분류하여 참여동기요인에 대한 지각차이를 분석하였다.

유형에 따라 지각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type I의 경우는 열기구축제에서 축제의 공연자체를 보기 위해서, type II의 경우는 축제자체를 좋아해서, type III의 경우는 일상생활을 탈출하여 생활의 변화를 갖어보기 위해서, type IV의 경우는 동료들과 함께 즉 사교성을 위하여라는 축제참여동기항목에 가장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축제현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어울릴 수 있고 축제라는 주제를 통해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대인관계를 갖을 수 있는 사교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Backman, Backman Uysal과 Sunshine(1995)은 미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상대로 과거에 축제나 이벤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흥분성, 신기성, 가족화합성, 사교성, 휴식성 등 5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여 인구통계적 특성변수에 따른 지각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축제프로그램의 공연이나 경연 그리고 축제장의 분위기에 대하여 몰입되는 경우는 젊은층과 노년층 그리고 미혼자와 기혼자에 따라 지각수준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족화합성의 경우도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참여동기에 대한 지각수준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성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지각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축제현장에서 이벤트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참여자들을 몰입케 하는 흥분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Scott(1996)은 오하이오주 클리버랜드에서 개최되고 있는 3개의 축제(Bug Fest; Holiday Lights Festival; Maple Sugaring Festival)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의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 자연감상성, 흥분성, 사교성, 가족화합성, 신기성, 탈일상성 등 6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여 이들 동기를 관광행태적 특성변수에 따른 지각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참여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각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축제참여 방문횟수에 따른 관광행태적 특성변수중에서 재방문객과 첫방

문객간의 축제에 대한 호기심요인에 있어서 상당한 지각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방문객의 경우 축제에 대한 호기심이 낮고 첫방문객의 경우 호기심에 참여동기요인의 높은 지각을 보이고 있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축제현장의 자연경관과 그러한 자연속에서 자연을 즐기기 위해 축제에 참여한다는 자연감상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Formica 와 Uysal(1996)은 이태리 Umbria Jazz Festival 에 참가한 방문객을 인구통계적특성변수인 거주지별에 따른 지역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축제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 흥분성, 사교성, 유흥성, 신기성, 가족화합성 등의 5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축제장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사교성에 보다 높은 참여동기 지각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의 경우는 축제의 유흥성에 보다 높은 참여동기를 나타내고 있어 축제에 보다 흥미로움을 보이고 있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흥분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Schneider와 Backman(1996)은 북미에서 적용하였던 축제참여동기항목 20 개를 Jerash Culture Art Festival에 적용하여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축제참여동기항목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화합성, 사교성, 문화성, 탈일상성, 흥분성 등 5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5개 요인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문화권간의 지각차이로 참여동기요인의 지각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참여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이한 문화권에서도 축제참여동기 측정항목이 적용되어 같은 결과의 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인간의 심리적동기요인이 비슷함을 나타내고 있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유익하고 보람된 여가시간을 갖게됨으로써 대화를 통한 가족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가족화합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훈과 Kerstetter(1997)은 미국 센트럴펜실베이니아 예술축제에서 인구통계적특성변수인 거주지별에 의한 지역주민 참가자와 방문객간의 축제참여동기 분석에서 유흥성, 쇼핑성, 예술체험성, 사교성, 의외성 등 5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역주민의 경우 축제에서 재미를 얻기 위해서 유흥성에 높은 지각의 차이를 보

이고 있는 반면에 방문객의 경우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예술품이나 공예품을 사기 위한 쇼핑성을 참여동기요인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경우 의외성에 강한 참여동기요인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노년층의 경우는 지인간의 사교성에 보다 높은 참여동기를 나타내고 있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축제현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현장체험을 통해서 즐기고 놀기 위한 단순한 생각에서 축제에 참여한다는 유희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Formica와 Uysal(1998)은 이태리 Spoleto Festival 에 참여한 방문객을 축제열광자와 보통사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희성, 흥분성, 사교성, 문화성, 가족화합성, 신기성 등 6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축제에 열광하는 방문객들은 사교성, 문화성, 그리고 가족화합성에 높은 지각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서 기혼자로서 고소득층이면서 나이가 많은 반면에 그저 축제에 별다른 관심 없이 참여하는 방문객은 미혼자로서 저소득이면서 젊은층으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유희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경녀(1998)는 경주의 '한국 전통주와 떡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참여동기 세분화에 관한 연구에서 42개의 축제참여동기측정항목을 적용하여 체험성, 가족화합성, 탈일상성, 군집성, 유희성, 역사성, 독특성, 사교성, 연계관광성 등 9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는 체험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충기·이태희(2000)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32개의 축제참여동기측정항목을 적용하여 문화경험성, 신기체험성, 가족친화성, 탈일상성, 사교성 등 5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5개의 요인을 군집분석 하여 다목적경험추구형, 일탈성문화추구형, 단순문화추구형 등 3개의 세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들은 소득수준, 결혼여부, 동반형태, 체류형태, 정보취득, 지출규모에 따른 세부집단간의 지각차이 분석을 하였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문화경험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창호(2001)는 강진청자문화제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28개의 참여동기측정항목을 적용하여 사교성, 교육성, 탈일상성, 가족화합성, 유희성, 신기성 등 6개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축제참여동기는 어떤 하나의 동기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복합된 동기요인에 의해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6개의 축제참여동기요인을 군집분석 하여 3개의 세분집단을 도출하였다.

또한 축제참여동기는 인구통계적특성과 관광행태적특성에 따라 유의한 지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사교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장주(2003)는 진도영등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21 개의 축제참여동기측정항목을 적용하여 화합성, 유희성, 친교성, 탈일상성, 신기성, 문화성 등 6개 요인을 확증적요인분석에 의하여 도출하였다.

이들 6개의 축제참여동기요인을 군집분석하여 유희추구형, 가족화합추구형, 탈일상적신기추구형 등 3개의 세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축제참여동기요인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는 요인은 화합성 참여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8개의 외국축제와 4개의 국내축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첫째,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축제참여동기요인으로 명명된 수는 20개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축제참여동기요인은 축제의 주제에 관계없이 대부분 사교성, 가족화합성, 신기성, 탈일상성, 흥분성, 유희성, 문화성 등 7개 요인의 범주 내에서 구성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축제참여동기요인은 인구통계적·관광행태적 특성에 따라 지각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각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끝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축제참여동기요인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통한 축제참여동기요인의 지각차이를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Ⅲ. 연구설계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축제 현장을 방문한 관광객들로 규정하였으며 확률표본의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해 무안백련대축제와 강진청자문화제의 축제 현장에서 자기

기입식 면접설문조사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는 각 축제의 기간중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각 축제마다 50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무안백련대축제(446매)와 강진청자문화제(416매)를 회수하였다.

유효표본 862매를 대상으로 SPSS/PC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참여동기 측정항목을 크롬바(crombach's)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reliabilty)검증을 하였으며, 표본의 적합도(kaiser measurement sample adequacy)를 검증하기 위하여 MSA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한편 축제참가동기 측정항목을 단순히 변수들간의 공통속성관계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요약·축약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축제참여동기 차이검증을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축제참여동기측정항목을 분석·검토하여 이들 측정항목이 강진청자문화제와 무안백련대축제의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30개의 참여동기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30개의 항목을 축제관련 이벤트사의 전문가와 본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이들 평가항목이 적당한지를 의뢰하였다. 전문가와 학생들의 평가결과 다른 평가항목과 유사하거나 난해한 3개의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27개의 평가항목이 결정되었다.

또한 설문지 내용이 피조사자에게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지에 관한 의견과 설문지 작성시간, 설문지 작성요령 등 조사시행 관련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관련 연구진 10명과 전공 석사·박사 대학원과정의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안 후 개발되었다.

설문항목은 인구통계적측정항목, 관광행태적측정항목, 일반 항목, 축제참여동기 측정항목, 축제만족도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축제참여동기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2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항목의 설문형식은 7점 리커트척도(7point Likert Scale)에 “전혀아니다(1)”, “보통이다(4)”, “매우그렇다(7)”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설문지에서 사용된 리커트척도는 등간척도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조사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행태적 특성으로 대별하였다.

조사표본의 인구통계적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구성비율을 보면 남성(56.5%), 여성(43.5%)으로 나타나 대체로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비율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10대와 20대의 비율이 57.8%인 반면에 50대 이상은 3.3%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축제참여에 있어 활동성과 차량운행이 많은 젊은층의 관광객의 우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력별 구성비율은 젊은층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고학력자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명(구분)		표본의 수(명)	표본의 비율(%)
성 별	남성	476	56.5
	여성	366	43.5
소 계		842	100.0
연 령	20세미만	177	20.6
	20 - 29 세	320	37.2
	30 - 39 세	204	23.7
	40 - 49 세	132	15.3
	50세 이상	28	3.3
소 계		861	100.0
학 력	고 졸	257	30.2
	대 계(전문대포함)	353	41.5
	대학졸 이상	144	16.9
	기 타	96	11.3
소 계		850	100.0
결혼여부	미혼	448	53.3
	기혼	393	46.7
소 계		841	100.0
거주지	지역내	192	22.3
	지역외	670	77.7
소 계		862	100.0

주) 결손값(missing value)들의 수와 비율은 표에서 제외시켜 계산하였음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미혼자(53.5%)가 기혼자(46.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들의 거주지별 구성비율은 축제지역외(77.7%)가 지역내(22.3%)보다 3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외지관광객의 축제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조].

조사표본의 관광행태적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문횟수 구성비율은 첫방문자(50.4%)와 재방문자(49.6%)의 참여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축제의 활성화와 재방문 축제참여자를 모객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동반자 행태별에 있어서 참여비율은 가족관광객(47.2%)과 비가족관광객(52.8%)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축제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구성비율은 인지관광객(71.8%) 그리고 불인지 관광객(28.2%)으로 축제참여자들의 3/4 정도가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축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마스크(45.2%), 구전(32.2%), 인터넷(7.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행사(0.5%)를

〈표 2〉 조사표본의 관광행태적 특성

변수명 (구분)		표본의 수 (명)	표본의 비율 (%)
방문횟수	첫방문	429	50.4
	재방문	423	49.6
소 계		852	100.0
동반자 형태	가족	406	47.2
	비가족	454	52.8
소 계		860	100.0
인 지 도	불인지	243	28.2
	인 지	619	71.8
소 계		862	100.0
정보획득	T·V, 라디오	223	25.9
	신문·잡지	166	19.3
	인터넷	64	7.4
	주위사람	277	32.2
	여행사	4	0.5
	기 타	127	14.8
소 계		861	100.0
체류기간	당 일	536	62.4
	숙 박	323	37.6
소 계		859	100.0

주) 결손값(missing value)들의 수와 비율은 표에서 제외시켜 계산하였음

통한 정보취득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전에 따른 정보취득이 상당함에 따라 축제방문객의 만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IT산업에 따른 인터넷이용도가 높음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보다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체류기간별 구성비율은 당일관광객(62.4%) 과 숙박관광객(37.6%)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류관광지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표 2〕참조〕.

## 2. 축제 참여동기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은 요인추출 방법 중 변수의 집합에서 각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인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상관관계 행렬표를 회전시켜 각 요인들이 주어진 변수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직각회전<sup>1)</sup> 방법에 의한 요인회전을 하였다.

요인분석시 설정되는 요인의 표본적합도를 측정하여 보면 참여동기 측정척도 29개 문항의 MSA값이 모든 항목에서 0.84이상이며 전체변수의 MSA값은 0.906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요인간 상관관계도는 낮게 나타나고있다.

또한 참여동기 측정척도항목 신뢰도를 크론바 알파계수<sup>2)</sup>를 이용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 알파계수 값은 모두 0.75이상으로 나타나 항목들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축제참여동기 27개 측정항목에서 7개의 요인을 설정하여 명명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 1을 “친교성”, 요인 2를 “화합성”, 요인3을 “유희성”, 요인4를 “문화성”, 요인 5를 “탈일상성”, 요인6을 “향토성”, 요인7을 “신기성”으로 각각 명명하였으며, 각 요인의 변량은 각각 31.735%, 10.813%, 6.851%, 5.855%, 4.691%, 3.907%, 3.573%로 총 67.425%의 설명력이 제시되었다〔표 3〕 참조〕.

1) 요인분석의 회전에 있어서는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0.32보다 낮아 요인들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간주하여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2)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 알파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한 경우에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신뢰계수 값은 0과 1사이에 위치하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0.75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표 3〉 축제참여동기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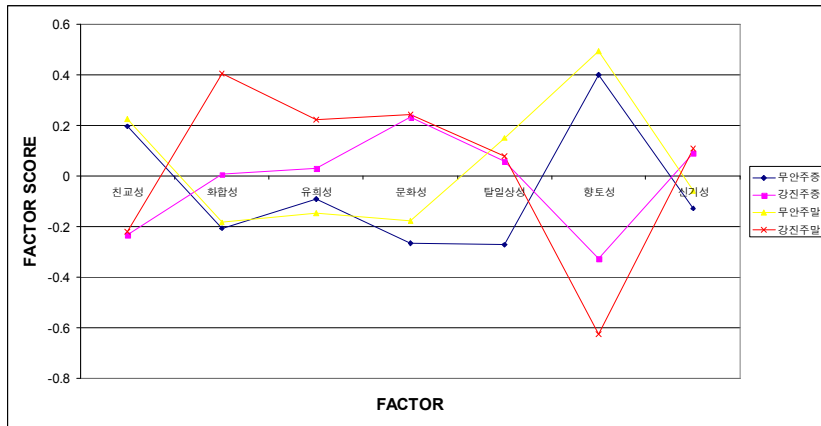
요인명 및 측정항목	적합도	요 인 적재량	공통분산	고유치
요인 I : 친교성(α= 0.8389)				
8. 축제공연자들의 전통의상을 보기 위해서	.939	.746	.660	9.203
9.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932	.745	.654	
10.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926	.731	.609	
7.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908	.729	.679	
6.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929	.567	.529	
요인 II : 화합성(α= 0.8989)				
13. 가족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863	.871	.823	3.136
12. 온가족이 축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854	.858	.838	
11.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886	.852	.784	
14. 나의 가족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916	.726	.684	
요인 III : 유희성(α= 0.8248)				
1. 축제가 재미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882	.795	.672	1.987
2. 축제가 독특하기 때문에	.894	.762	.654	
3. 축제에 가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938	.678	.550	
4.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음에 들어서	.942	.671	.611	
5. 축제의 프로그램과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943	.632	.534	
요인 IV : 문화성(α= 0.8521)				
20.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878	.795	.774	1.698
21. 지역의 유물·유적·문화재를 보고 싶어서	.903	.794	.776	
22. 도산품, 공예품을 좋아해서	.909	.709	.685	
19.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925	.683	.645	
요인 V : 탈일상성(α= 0.8224)				
25. 쉼·압력·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876	.823	.796	1.360
26. 몸과 마음을 쉬게 하려고	.898	.773	.756	
24.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에서 변화를 갖고 싶어서	.919	.768	.724	
27. 축제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926	.453	.459	
요인 IV 향토성(α= 0.7540)				
18.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840	.711	.620	1.133
23. 무안지역의 향토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938	.602	.635	
요인 V : 신기성(α= 0.7837)				
16. 새로운 장소를 보기 위해서	.900	.802	.775	1.036
15. 호기심때문에	.909	.764	.716	
17.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937	.613	.614	

### 3. 축제 참여동기 지각차이검증

#### 1) 주중·주말 관광객에 따른 지역별 축제참여동기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 축제참여동기에 대한 주중·주말 관광객에 따른 지역별 축제참여동기 차이 검증을 위하여 요인값에 의한 다변량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이용한 이유는 experimentwise Type I Error rate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5개의 종속변수에 대해 알파=0.05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일원분산분석을 했을 경우 experimentwise Type I Error rate는  $1-(1-\alpha)^p=1-(1-0.05)^5=0.226$ 로 상승하게 된다. 다변량분산분석 기법은 이와

같은 Type I Error rate 의 상승을 통제한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한 또다른 이유는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개별적인 일원분산분석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변량분산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에 따라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이 같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결과 지역별 축제참여동기에 대한 지각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Wilks' V=0.572, F= 25.025, p< 0.000)(〈그림 1〉 참조).



〈그림 1〉 주중·주말 관광객에 따른 지역별 축제참여동기 차이분석

주중에 축제를 참여하는 관광객과 주말관광객의 축제참여동기에 관한 지각차이 검증결과는 〈표 4〉에서 같이 축제참여동기요인 전체에서 주말관광객이 주중관광객에 비해서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안백련대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친교성, 탈일상성, 향토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강진청자문화제는 화합성, 유희성, 문화성, 신기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4〉 축제참여동기 평균값

축제명 \ 이미지	친교성	화합성	유희성	문화성	탈일상성	향토성	신기성
무안백련대축제주중	.1957	-.2052	-.0920	-.2645	-.2720	.3988	-.1267
강진청자문화제주중	-.2328	.0067	.0298	.2327	.0603	-.3289	.0915
무안백련대축제주말	.2256	-.1845	-.1475	-.1774	.1498	.4951	-.0580
강진청자문화제주말	-.2185	.4077	.2244	.2427	.0786	-.6248	.1077

주) 요인값(factor score)을 이용 다변량분산분석에 의해 산출된 평균(mean)값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축제참여동기가 주말관광객들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5일근무제에 따른 관광행태의 변화가 주말관광객으로 하여금 주중관광객에 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축제 참여 동기요인을 유발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2) 주중·주말 관광객의 축제참여동기 지각차이 분석

### 가) 무안백련대축제의 주중·주말 축제참여동기 지각차이 분석

인구통계적특성의 성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 남·여 모두 향토성과 신기성에 그리고 주말관광객 남성은 향토성과 친교성 여성은 향토성과 탈일상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말관광객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의 경우 39세 이하는 향토성과 친교성에 40세 이상의 경우 친교성과 향토성에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경우 49세 이하는 향토성과 신기성, 50세 이상의 경우는 친교성과 향토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중관광객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무안백련대축제의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축제참여동기 지각차이 분석

축제명		참여동기 (요인)	친교성	화합성	유희성	문화성	탈일상성	향토성	신기성	Wilks' Lambda F값		
인구통계적특성	무안연꽃축제 주중	성 별	남성(56.7%)	.1919	-.2795	-.0670	-.2402	-.2623	.4135	.4135	.453	
			여성(43.3%)	.1897	-.1234	-.1449	-.2610	-.3314	.3928	.3928		
		F값	.000	3.255	.370	.034	.452	.038	.100			
		p값	.984	.073	.544	.853	.502	.846	.752			
		연 령	20세미만(26.4%)	.0479	-.3342	-.1266	-.3837	-.3088	.4287	-.1110		.000
			20-29세(41.9%)	.1786	-.0890	.0406	-.1613	-.1840	.5000	-.2187		
	30-39세(15.4%)		.2080	-.0730	-.2923	-.4892	-.2609	.3555	-.1840			
	40-49세(14.5%)		.4319	-.4130	-.1138	-.0630	-.5253	.2378	.1927			
	50세이상(1.8%)		.7646	-.4668	-.8064	-.6211	.1817	-.7449	-.3125			
	F값		1.757	3.037	1.550	2.169	1.678	3.250	1.897			
	p값	.139	.018	.189	.073	.156	.013	.112				
	학 력	고졸(22.2%)	.0549	-.1904	-.2457	-.2808	-.3514	.4356	-.0350	.786		
		대재(33.0%)	.1744	-.1999	.0420	-.2857	-.1333	.4296	-.1515			
		대학졸이상(19.9%)	.3260	-.2039	-.0470	-.4284	-.2983	.3056	-.0760			
		기타(24.9%)	.1706	-.3050	-.2207	-.1783	-.3658	.3444	-.2568			
		F값	.893	.424	1.366	.809	1.122	.369	.824			
		p값	.446	.736	.254	.490	.341	.775	.482			
	거 주 지	지역내(42.7%)	.2571	-.1492	-.1386	-.2141	-.2435	.4564	-.0980	.708		
		지역외(57.3%)	.1499	-.2470	-.0580	-.3022	-.2933	.3559	-.1480			
		F값	.988	1.363	.427	.668	.242	.977	.231			
		p값	.321	.244	.514	.415	.623	.324	.631			
	결혼여부	미혼(61.3%)	.2214	-.1570	-.0160	-.1991	-.2442	.4698	-.1779	.122		
		기혼(38.7%)	.1874	-.2702	-.2088	-.3972	-.3616	.2561	-.0150			
		F값	.090	1.640	2.247	3.300	1.313	4.102	2.326			
p값		.765	.202	.135	.071	.253	.044	.129				

<표 계속>

축제명		참여동기 (요인)	친교성	화합성	유희성	문화성	탈일상성	향토성	신기성	Wilks' Lambda
인구통계적특성	성별	남성 (61.1%)	.2754	-.1962	-.2510	-.2082	.0616	.4310	.0158	.050
		여성 (38.9%)	.1112	-.1626	.0293	-.1869	.2402	.5790	-.1307	
		F값	3.298	.209	6.230	.057	3.054	2.967	2.370	
		p값	.071	.648	.013	.812	.082	.086	.125	
	연령	20세미만 (13.3%)	.1703	-.2608	-.1845	-.0099	.2766	.5375	-.2057	.170
		20-29세 (39.0%)	.2894	-.1356	-.2470	-.2041	.1031	.5280	.0572	
		30-39세 (27.5%)	.1653	-.0980	-.1384	-.2328	.1228	.4383	-.0960	
		40-49세 (17.0%)	.2223	-.3259	.1366	-.2007	.1732	.4886	-.0330	
		50세이상 (3.2%)	.3005	-.6091	-.2802	.0923	.4029	.3226	-.6055	
		F값	.389	2.485	1.519	.917	.521	.349	2.098	
		p값	.817	.045	.198	.455	.720	.845	.082	
	학력	고졸 (19.2%)	.3947	-.1914	.2472	-.2383	.1354	.4590	-.0010	.068
		대졸 (26.8%)	.2473	-.1556	-.2426	-.2870	.0725	.4506	.0512	
		대학졸이상 (36.2%)	.1915	-.2009	-.2426	-.0810	.2565	.4681	-.0740	
		기타 (17.8%)	.0741	-.1325	-.1610	-.1655	.0575	.6384	-.1533	
		F값	1.703	.179	3.988	1.212	.953	.863	.783	
		p값	.168	.911	.009	.307	.416	.461	.505	
	거주지	지역내 (6.8%)	.0902	-.4560	-.3201	.1440	.1695	.4826	-.1117	.230
		지역외 (93.2%)	.2356	-.1646	-.1348	-.2010	.1484	.4960	-.0540	
		F값	.672	4.077	.723	3.918	.011	.006	.097	
		p값	.413	.045	.396	.049	.916	.936	.756	
	결혼여부	미혼 (40.4%)	.2400	-.1336	-.1983	-.2025	.1147	.6143	.0417	.100
		기혼 (59.6%)	.2231	-.1895	-.1033	-.1194	.1650	.4396	-.0960	
		F값	.032	.551	.672	.861	.237	4.027	1.957	
	p값	.859	.459	.413	.355	.627	.046	.163		

학력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 모두가 향토성과 친교성에 높은 지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주중관광객의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친교성 주말관광객의 대졸이상 관광객이 탈일상성에 높은 지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젊고 미혼의 대졸학력자와 기혼의 젊은층 대졸 학력자와의 축제참여동기에 대한 지각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거주지별, 결혼여부별 지각차이검증에서 모두 향토성과 친교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5) 참조].

관광행태적 특성 지각차이 검증에서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의 방문횟수별, 동반자행태별, 축제인지도별, 정보취득별, 체류기간별에 따른 참여동기요인은 향토성과 친교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중 정보취득을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관광객은 유희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중관광객의 동반자행태와 주말관광객 축제인지도에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참조].

<표 6> 무안백련축제의 관광행태적특성에 따른 축제참여동기 지각차이 분석

축제명		참여동기 (요인)								Wilks' Lambda P값			
		친교성	화합성	유희성	문화성	탈일상성	향토성	신기성					
관 광 행 태 적 특 성	무 안 꽃 축 제 주 중	방문 횟수	첫방문 (42.1%)	.3235	-.1628	-.0840	-.1348	-.2187	.4694	-.0350	.226		
			재방문 (57.9%)	.1272	-.2577	-.1006	-.3346	-.3089	.3296	-.2082			
			F값	3.282	1.302	.017	3.505	.820	1.934	2.778			
		p값	1.029	3.892	4.255	1.489	5.505	6.525	.003				
		동반자 형태	가족(32.3%)	.2754	-.3284	-.2774	-.3539	-.4413	.2105	-.1221		.023	
			비가족 (67.7%)	.1592	-.1557	-.0090	-.2150	-.1919	.4820	-.1279			
			F값	1.029	3.892	4.255	1.489	5.505	6.525	.003			
		p값	.311	.050	.040	.224	.020	.011	.958				
		인지도	불인자 (25.1%)	.2367	-.1557	-.1997	-.3825	-.4123	.3005	-.1958			.275
			인자 (74.9%)	.1820	-.2218	-.0560	-.2249	-.2249	.4318	-.1035			
			F값	.197	.477	1.035	1.650	2.661	1.283	.611			
		p값	.658	.491	.310	.200	.104	.258	.435				
	정보 획득	TV,라디오 (35.8%)	.1238	-.1180	-.1255	-.1571	-.1923	.5148	-.0250	.118			
		신문·잡지 (19.9%)	.1556	-.3895	.0507	-.3153	-.3339	.3343	-.3524				
		인터넷 (7.1%)	.0079	-.1165	.1150	-.4931	-.2681	.4921	-.1890				
		주위사람 (25.2%)	.2695	-.2995	-.2309	-.4296	-.3833	.2088	-.1521				
		기 타 (11.9%)	.4561	.0155	-.0017	.0255	-.1493	.5793	.0449				
		F값	1.239	2.703	.892	2.276	.789	1.974	1.704				
	p값	.295	.031	.469	.062	.533	.099	.150					
	체류 기간	당일(65.0%)	.1907	-.2113	-.1648	-.3129	-.2602	.3750	-.1106		.634		
		숙박(35.0%)	.1869	-.2054	.0340	-.1733	-.2654	.4392	-.1793				
		F값	.001	.005	2.406	1.551	.002	.367	.415				
	p값	.973	.946	.122	.214	.961	.545	.520					
	관 광 행 태 적 특 성	무 안 연 꽃 축 제 주 말	방문 횟수	첫방문 (44.7%)	.1811	-.2088	-.0011	-.2719	.2302			.5153	-.1137
재방문 (55.3%)				.2580	-.1580	-.2651	-.0970	.0909	.4887	-.0110			
F값				.711	.459	5.623	3.822	1.891	.097	1.152			
p값			.400	.499	.019	.052	.171	.756	.284				
동반자 형태			가족(51.8%)	.2297	-.1523	-.0530	-.1578	.2195	.5552	-.0840		.572	
			비가족 (48.2%)	.2146	-.2185	-.2454	-.1985	.0781	.4328	-.0300			
			F값	.028	.802	3.065	.208	1.972	2.109	.335			
p값			.867	.371	.081	.649	.162	.148	.563				
인지도			불인자 (30.6%)	.2008	-.2173	.1202	-.3368	.0692	.3920	-.0900	.004		
			인자 (69.4%)	.2365	-.1701	-.2655	-.1072	.1853	.5405	-.0440			
			F값	.135	.349	10.927	5.822	1.137	2.671	.209			
p값			.714	.555	.001	.017	.287	.104	.648				
정보 획득		TV,라디오 (30.1%)	.2474	-.2016	-.2535	-.1361	.1202	.5021	-.0220	.772			
		신문·잡지 (26.0%)	.2459	-.2378	-.1343	-.2115	.1173	.3813	-.1366				
		인터넷 (11.0%)	.2134	-.0230	-.1887	-.3020	.2303	.4628	-.0820				
		주위사람 (24.2%)	.1913	-.2561	-.0510	-.1157	.1215	.5521	-.0990				
		여행사 (0.9%)	-.5764	-.2639	.1807	-.1250	-.6278	.8515	-.1963				
		기 타 (7.8%)	.2913	.0645	-.0610	-.2460	.4397	.6751	.2470				
F값		.670	1.471	.485	.384	1.071	.898	.897					
p값		.647	.200	.787	.860	.377	.483	.484					
체류 기간		당일(51.4%)	.1485	-.2003	-.1605	-.1839	.1855	.5368	-.0300		.487		
		숙박(48.6%)	.3135	-.1789	-.1481	-.1644	.1157	.4378	-.0990				
		F값	3.418	.086	.013	.048	.478	1.406	.546				
p값		.066	.769	.910	.827	.490	.237	.461					

## 나) 강진청자문화제의 주중·주말 축제참여동기 지각차이 분석

인구통계적 특성의 성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에 있어서 남·여 모두 문화성과 탈일상성을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경우 남성은 화합성과 문화성을 여성은 화합성과 유희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중, 주말 모두 10%와 5%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젊은층과 노년층은 화합성과 탈일상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면서도 젊은층의 경우는 탈일상성에 이에 반하여 노년층은 화합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관광객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연령층이 비슷하게 문화성과 화합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대와 50대의 경우 신기성에도 상당한 지각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중, 주말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의 대학재 이상 고학력자는 문화성에 저학력자는 탈일상성에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고학력자는 화합성에 저학력자는 유희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말관광객에 있어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거주지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의 지역내 거주자는 유희성과 화합성을 지역외 거주자는 문화성과 신기성에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지역내 거주자는 유희성과 화합성 지역외 거주자는 화합성과 문화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주중, 주말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여부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의 미혼자는 신기성과 문화성을 기혼자는 문화성과 화합성에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미혼자는 유희성과 탈일상성에 기혼자는 화합성과 문화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각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중/주말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7〕 참조]

관광행태적특성의 방문횟수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의 첫방문자는 문화성과 신기성을 재방문자는 화합성과 친교성에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첫방문자는 신기성과 화합성을 재방문자는 화합성과 유희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중, 주말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강진청자문화제의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축제참여동기 지각차이 분석

축제명		참여동기 (요인)	친교성	회합성	유희성	문화성	탈일상성	향토성	신기성	Wilks' Lambda	F값	
인구통계적특성	강진청자문화제주동	성별	남성(57.8%)	-.0390	.0379	-.0930	.2686	.1024	-.3487	-.0430	.079	
			여성(42.2%)	-.4979	-.0360	.1975	.1837	.0027	-.3018	.2759		
			F값	7.167	.170	3.181	.239	.354	.090	3.750		
		p값	.008	.681	.076	.625	.552	.764	.054			
		연령	20세미만(21.8%)	-.1709	.1359	.1340	-.2074	.1427	-.1734	.0642		.000
			20-29세(42.7%)	-.2400	-.3291	-.0120	.0877	.0203	-.2239	.4732		
	30-39세(20.9%)		-.2469	.0106	.1149	.6072	-.0860	-.5653	-.3478			
	40-49세(12.1%)		-.3773	.7900	-.1539	.9720	.1807	-.4615	-.5246			
	50세이상(2.4%)		.1820	.8078	.0130	-.1686	.6819	-.8802	.4779			
	F값	.254	4.913	.330	5.615	.647	1.326	6.251				
	p값	.907	.001	.858	.000	.629	.262	.000				
	학력	고졸(35.9%)	-.2828	.1180	.0663	.1087	.1729	-.2654	.0109	.212		
		대제(58.7%)	-.2304	-.0630	.0850	.2927	.0491	-.3389	.2197			
		대학졸이상(4.9%)	.0132	.0230	-.7597	.5198	-.6561	-.6057	-.8173			
		기타(0.5%)	.7318	.0689	-1.4463	-.7177	.2491	-1.0508	-.3749			
		F값	.374	.312	2.241	.727	1.461	.433	2.702			
	p값	.772	.817	.085	.537	.226	.729	.047				
	거주지	지역내(19.4%)	-.0480	.0270	.4450	-.1414	-.1110	-.3714	-.0730	.047		
		지역외(80.6%)	-.2773	.0019	-.0700	.3229	.1016	-.3187	.1310			
		F값	1.117	.013	6.534	4.692	1.036	.073	.965			
	p값	.292	.911	.011	.031	.310	.787	.327				
	결혼여부	미혼(64.1%)	-.1564	-.1761	.0585	.1089	.0309	-.1797	.3042	.000		
		기혼(35.9%)	-.3690	.3330	-.0210	.4536	.1123	-.5951	-.2878			
		F값	1.412	7.941	.224	3.788	.226	6.906	12.695			
p값	.236	.005	.637	.053	.635	.009	.000					
강진청자문화제주말	성별	남성(50.5%)	-.1677	.5088	.1205	.3815	.2493	-.7435	-.0286	.023		
		여성(49.5%)	-.2703	.3047	.3302	.1011	-.0950	-.5038	.1883			
		F값	.433	1.395	2.092	3.277	4.414	3.138	.850			
	p값	.511	.239	.150	.072	.037	.078	.358				
	연령	20세미만(20.5%)	-.2713	.0210	.6728	-.3272	-.2372	-.3427	-.0310	.000		
		20-29세(24.8%)	.1868	-.0550	.1232	.2983	-.0550	-.7667	.3293			
		30-39세(31.4%)	-.3930	.9919	.2687	.3164	.3152	-.7175	.1962			
		40-49세(17.6%)	-.2308	.5743	-.0520	.5082	.1486	-.6240	-.2705			
		50세이상(5.7%)	-.7890	.0701	-.3368	.8191	.2738	-.5130	.3240			
	F값	2.968	7.616	3.778	4.411	1.686	1.345	1.564				
	p값	.021	.000	.005	.002	.155	.255	.185				
	학력	고졸(44.3%)	-.3222	.1804	.3373	.0702	-.0300	-.5246	-.0900	.004		
		대제(48.6%)	-.2027	.5523	.1739	.3463	.1366	-.6778	.2893			
		대학졸이상(6.2%)	-.0000	.9209	-.3057	.6183	.4330	-.6737	.2431			
		기타(1.0%)	2.3748	.2672	.9901	.5371	-.1233	-2.2621	-.8296			
		F값	4.125	2.247	1.910	1.549	.730	2.314	1.930			
	p값	.007	.084	.129	.203	.535	.077	.126				
	거주지	지역내(19.0%)	-.2849	.0455	.6801	-.3307	-.2422	-.2585	-.3549	.000		
지역외(81.0%)		-.2029	.4929	.1171	.3776	.1541	-.7110	.2165				
F값		.170	4.191	9.635	13.532	3.586	7.026	6.897				
p값	.681	.042	.002	.000	.060	.009	.009					
결혼여부	미혼(47.1%)	-.0550	-.0390	.3233	-.0580	-.0021	-.5955	.2103	.000			
	기혼(52.9%)	-.3647	.8062	.1361	.5106	.1506	-.6509	.0162				
	F값	4.004	26.747	1.659	14.107	.849	.165	1.252				
p값	.047	.000	.199	.000	.358	.685	.265					

〈표 8〉 강진청자문화제의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축제참여동기 지각차이 분석

축제명		참여동기 (요인)	친교성	화합성	유희성	문화성	탈일상성	향토성	신기성	Wilks' Lambda	P값
강진청자문화제 주중	방문 횟수	첫방문 (57.8%)	-.4858	-.1495	-.0310	.3877	.0612	-.3572	.2293	.002	
		재방문 (42.2%)	.1132	.2206	.1129	.0208	.0591	-.2901	-.0970		
		F값	12.522	4.375	.773	4.564	.000	.185	3.923		
		p값	.000	.038	.380	.034	.990	.668	.049		
	동반자형	가족 (48.1%)	-.3221	.7572	-.1595	.3186	.1200	-.4438	.0145	.000	
		비가족 (51.9%)	-.1501	-.6875	.2051	.1533	.0050	-.2226	.1627		
		F값	1.001	99.144	5.189	.932	.482	2.076	.816		
		p값	.318	.000	.024	.336	.488	.151	.367		
	인지도	불인자 (30.6%)	-.4400	-.1354	-.0800	.3258	-.1391	-.2578	.4095	.070	
		인자 (69.4%)	-.1415	.0694	.0784	.1917	.1482	-.3602	-.0490		
		F값	2.581	1.147	.818	.520	2.587	.375	6.820		
		p값	.110	.285	.367	.472	.109	.541	.010		
	정보 획득	TV, 라디오 (12.6%)	-.3320	.5757	.0345	2131	.1253	-.1358	.4225	.018	
		신문·잡지 (17.5%)	-.0680	.2472	.2195	2359	.2161	-.2612	-.2340		
		인터넷 (7.8%)	-.6817	-1.1257	.3164	1.0332	-.1295	-.7150	-.1924		
		주위사람 (39.8%)	-.2367	-.0240	-.1181	.0310	-.0290	-.2657	.2747		
		여행사 (1.0%)	.2766	-.0042	1.1363	-.6994	.3617	.9190	.0502		
		기타 (21.4%)	-.1617	-.0570	-.0069	.3989	.1154	-.5326	-.0740		
	F값	.679	4.214	1.029	2.205	.353	1.458	1.753			
	p값	.640	.001	.402	.055	.880	.205	.124			
	체류기간	당일 (64.6%)	-.2741	-.0210	.0080	.3336	.0801	-.4153	.0143	.425	
		숙박 (35.4%)	-.1575	.0581	.0695	.0490	.0242	-.1715	.2321		
		F값	.420	.185	.132	2.551	.104	2.312	1.621		
		p값	.518	.667	.717	.112	.747	.130	.204		
강진청자문화제 주말	방문 횟수	첫방문 (57.6%)	-.1000	.3224	.1556	.3156	.0839	-.8165	.4202	.000	
		재방문 (42.4%)	-.3802	.5236	.3178	.1434	.0715	-.3642	-.3171		
		F값	3.200	1.324	1.217	1.196	.005	11.343	19.222		
		p값	.075	.251	.271	.275	.941	.001	.000		
	동반자형	가족 (57.6%)	-.3653	.8552	.1658	.4537	.0190	-.6380	.0163	.000	
		비가족 (42.4%)	-.0190	-.2006	.3040	-.0440	.1596	-.6068	.2319		
		F값	4.916	43.879	.882	10.445	.706	.051	1.515		
		p값	.028	.000	.349	.001	.402	.821	.220		
	인지도	불인자 (26.7%)	-.3493	.4061	-.0460	.2188	-.0770	-.6733	.3094	.160	
		인자 (73.3%)	-.1710	.4083	.3226	.2513	.1350	-.6071	.0344		
		F값	1.024	.000	5.129	.034	1.284	.184	1.980		
		p값	.313	.991	.025	.854	.259	.668	.161		
	정보 획득	TV, 라디오 (23.8%)	-.2703	.7568	.1273	.6121	.1026	-.6344	.1154	.012	
		신문·잡지 (13.3%)	-.4323	-.2028	.6058	-.0210	-.2048	-.4853	.0234		
		인터넷 (3.8%)	-.5367	1.2488	-.4268	.5908	.1960	-.7353	-.5752		
		주위사람 (40.5%)	-.0490	.2534	.2158	.2123	.2694	-.5751	.1982		
		기타 (18.6%)	-.3039	.5622	.2272	-.0470	-.1525	-.7982	.1011		
		F값	.973	4.252	1.819	2.652	1.311	.518	.730		
	p값	.423	.003	.126	.034	.267	.723	.572			
	체류기간	당일 (68.9%)	-.2600	.4327	.1761	.3698	.1675	-.6677	.2040	.058	
		숙박 (31.1%)	-.1315	.3653	.3103	-.0210	-.0950	-.5643	-.1219		
		F값	.576	.128	.728	5.480	2.172	.502	3.044		
		p값	.449	.720	.394	.020	.142	.479	.082		

동반자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 주말 관광객의 경우 가족관광객은 모두 화합성과 문화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가족 관광객의 경우도 주중, 주말 모두 유희성과 신기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중, 주말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축제인지도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의 불인지 관광객은 신기성과 문화성을 인지관광객은 문화성과 탈일상성에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불인지 관광객은 화합성과 신기성을 인지관광객은 화합성과 유희성에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중관광객의 경우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보취득별 지각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의 경우 언론매체를 통해 축제정보를 취득한 관광객은 화합성을 주위사람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관광객은 문화성에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경우는 화합성과 유희성 그리고 주위사람으로부터 구전에 의해 정보를 취득한 관광객은 탈일상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중, 주말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체류기간별 차이검증에서 주중관광객의 경우 당일관광객은 문화성과 탈일상성을 숙박관광객은 신기성과 문화성에 이에 반하여 주말관광객의 경우 당일관광객은 화합성과 문화성을 숙박관광객은 신기성과 유희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관광객에 있어서만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8〕 참조.

## V.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가 인간의 삶의 질과 정신문화의 향상 그리고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산업 중에서도 문화관광이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매년 연행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행되고 있는 축제가 프로그램의 획일화와 전문성의 결여로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사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축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재정자립도마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축제가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많은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제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축제참여동기요인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축제참여자를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행태적특성 변수 10개를 적용하여 이들의 참여동기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축제 참여동기에 대한 지각차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8개의 외국축제와 4개의 국내축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축제참여동기는 20개정도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참여동기요인은 축제의 주제에 관계없이 사교성, 가족화합성, 신기성, 탈일상성, 흥분성, 유희성, 문화성 등 7개 요인의 범주 내에서 구성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참여동기요인과 강진청자문화제와 무안백련대축제의 주중·주말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출된 7개의 참여동기요인을 비교해 볼 때 거의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축제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축제측정항목 27개를 무안백련대축제와 강진청자문화제에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교성, 화합성, 유희성, 문화성, 탈일상성, 향토성, 신기성 등 7개의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도출하였다.

네째, 무안백련대축제와 강진청자문화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축제참여동기요인은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에 따라 지각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의 참여동기요인에 대한 지각차이는 모든 참여동기요인에서 주말관광객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백련대축제에 참여하는 주말관광객은 향토성, 친교성, 탈일상성 순위로 이에 반하여 강진청자문화제에 참여하는 주말관광객은 화합성, 문화성, 유희성, 신기성 순위로 지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무안백련대축제와 강진청자문화제에 참여하는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은 인구통계적·관광행태적 특성에 따라 지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백련대축제에서는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의 인구통계적·관광행태적 특성의 모든 변수에서 향토성, 친교성 참여동기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신기성, 탈일상성, 유희성, 문화성, 화합성 순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강진청자문화제에서는 화합성, 문화성 참여동기요인이 가장 높게 지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희성, 신기성, 친교성, 탈일상성, 향토성 순으로 지

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안백련대축제의 참여동기요인은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에 대한 지각차이검증에서 이들 모두가 향토성과 친교성을 이에 반하여 강진청자문화제의 경우는 화합성과 문화성에 가장 높은 지각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축제는 이러한 참여동기요인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여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자들의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축제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축제참여동기요인을 무안백련대축제와 강진청자문화제에만 적용하여 축제참여동기요인을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무안백련대축제와 강진청자문화제의 참여동기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참여동기의 지각차이검증만으로 하여 수리적 객관성이 떨어져 분석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축제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설문문의 한계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축제참여동기요인을 주중관광객과 주말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인구통계적·관광행태적 특성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연경녀(1998). 축제참가동기 세분화에 관한 연구. 『관광품질시스템연구』 4(1): 161-182.
- 이용기·이덕우·이충기(2003). 지각된 환경단서가 방문객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수안보 온천축제의 경우. 『관광학연구』, 27(1): 85-104.
- 이장주(2001). 지역축제의 목표시장 선정과 포지셔닝 방안, 영·호남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경주대학교 관광진흥연구원·사단법인 『목포 백년회 서남권 개발연구원』.
- 이장주(2003). 지역축제 참여동기 유형에 관한 연구: 6개 참여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장주·이후석(2001). 진도영등축제의 시장세분화전략. 『한국관광지리회』, 제14호.
- 이창호(2001). 지역축제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강진청자문화제를 중심으로.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충기·이태희(2000).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축제참가동기 분석. 『관광학연구』,

23(2): 81-97.

이태희(2003). 「축제 브랜드 경영론」. 서울: 대왕사,

채용식외(2001). 「관광축제이벤트론」. 서울: 학문사

이훈 & Kerstetter(1997). 방문자들의 예술축제 경험과 평가분석: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지 비교연구. 『관광연구 논총』, 제9호.

Formica, S. & Uysal, M.(1996). A market segmentation of festival visitors: Umbria jazz festival in Italy.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3: 175-183.

Formica, S. & Muzaffer, U.(1998). Market segmentation of an international: Cultural-historical event in Ital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4): 16- 24.

Getz, D.(1991). *Festival, special event,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Getz, D.(1991).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5-8.

Backman, K., Backman, S., Uysal, M. & Sunshine, K. M.(1995). Event tourism: An examination of motivations and activity.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1: 15-24.

Mohr, K., Backman, K. F., Gahan, L. W. & Backman, S. J.(1993). An investigation of festival motivations and event satisfaction by visitor type.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1(1): 89-97.

Scott, D.(1996). A comparison of visitors' motivations to attend three urban festivals.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3(4): 121-128.

Uysal, M., Backman, K. F., Backman, S. J. & Potts, T.(1991). An examination of event tourism motivations and activities pp. 203~218. New Horizons Conference Proceedings, The University of Calgary.

Uysal, M., Gahan, L. & Martin, B.(1993).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s: A case study.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1(1): 5-10.

2003년 10월 15일 원고 접수 · 2003년 11월 12일 수정본 접수  
2003년 12월 2일 재수정본 접수 · 2003년 12월 22일 최종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畢